



BookExpo America 외부 배너

# 정보교환-교육 프로그램

## —

# 체험이 어우러진 책문화 한마당

| 허선-미국 출판마케팅협회 회원 |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북엑스포 아메리카(BookExpo America)가 개최됐다. 시카고와 뉴욕을 거쳐 4년 만에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무대를 옮긴 것이다. 이번 도서전은 2,000여 개의 참가사, 100여 개가 넘는 교육과정, 650여 명의 저자사인회, 그리고 새로이 선보인 그래픽 노블 코믹Graphic Novel/Comic 전시관, e-Book 체험관, Video/DVD 쇼케이스 등 볼거리가 가득했는데 특히 출판관련물의 전시 및 저작권 판매 위주로 진행되는 도서전과의 차별화가 돋보였다. 출판 전문가들이 모여 교류를 하고 세미나와 재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출판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미국도서전은 출판관련 종사자 모두를 위한 행사가 돼야 한다는 데 큰 비중을 둔다. 전시자들은 출판사, 비서적 관련사, 기술 상품 및 서비스 관련사로 나뉘고, 참가자들은 북셀러, 리테일러, 도서관 사서와 수집가, 판권 전문가, 그리고 출판산업 전문가들과 바이어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출판산업과 인

력 분포가 얼마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도서전시와 함께 출판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출판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PMA University와 Audio Publishers Association Convention이 있었다. PMA University는 Publishers Marketing Association이 주관하고 BEA (BookExpo America)가 협력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해에는 출판을 기본과정과 전문분야 8부분(인터넷과 디지털, PR, 마케팅, 일반판매와 특별판매, 편집, 디자인과 제작, 사업 계획과 재무전략 그리고 법률전문, 그 외 일반 출판물)으로 나누어 무려 70개의 세미나가 열렸다. 교육장소인 LA 월서그랜드 호텔은 재교육을 받으려는 출판인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 외에 2003년 Audio Publishers Association Convention도 눈에 띄었다. 오디오 서적 출판의 제작에서부터 다양한 판매루트, 사업계획, 그리고 이 산업에 연관된 전자제품의 테크놀로지 등을 점검하는 전문 세미나로 오디오 출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Book 체험관 전경



BookExpo America 사진

미국도서전은 출판관련 종사자 모두를 위한 행사가 돼야 한다는 데 큰 비중을 둔다. 전시자들은 출판사, 비서적 관련사, 기술 상품 및 서비스 관련사로 나뉘고, 참가자들은 북셀러, 리테일러, 도서관 사서와 수집가, 판권 전문가, 그리고 출판 산업 전문인들과 바이어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출판산업과 인력 분포가 얼마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BEA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ABA 프로그램, 포럼, 특별분야 세미나, 그리고 개별분야 세미나로 나뉘는데, ABA(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프로그램은 예비서점 오너부터 중소서점, 대형서점을 위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설치되어 각자에 맞는 효율적인 서점운영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 미국도서전에서 처음 시작된 글로벌판권포럼 Global Rights Forum은 세계출판시장을 이끄는 국제도서전인 런던국제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과 함께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10월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내년 3월에 열리는 런던도서전에서도 계속 열리게 된다. 특별분야 세미나로는 e-Book 체험관과 함께 실시된 e-Book 미니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오전에는 출판사, 서점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e-Book 이용실태와 진행사항이 논의되었고, 오후에는 e-Book 체험관 참가자들이 각자 자사의 제품과 특징들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참석자가 너무 적어 e-Book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음을 반증했다.

이 밖에도 연일 이어진 각종 시상식과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사인회는 도서전이 출판문화 교류의 본격적인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사기간 중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출판인이자 인쇄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으로 매년 편집과 디자인이 뛰어난 출판물에 주어지는 벤자민 프랭클린 시상식이 열렸고 램다문학 시상식, 나프라 노틸러스 시상식, 라티노 문학서적 명예의 전당 시상식, 그리고 북센스 올해의 책 시상식 등이 열려 저녁마다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성황 속에서 매일 이어졌다. 토요일 책과 저자(미디어 토크) 오찬모임, 일요일 책과 저자 조찬모임, 그리고 일요일 책과 저자 티모임 등이 있었다. '북센스 76 작가와 서점인들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소노마에서 온 리더스 북Reader's Books의 앤디 위엔버거Andy Weinberger는 "작가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에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고 말했다.

650여 명이 넘는 저자 사인회는 사인 전용관에서 이루어진



PMA 전무이사 Jan Nathan과 함께 PMA 세미나에서

세미나 진행을 맡았던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서평담당 기자 켈빈 리드 씨는 “이 분야에서 큰 장르는 망가(일본만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시장에서의 일본만화 강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티켓 사인회와 분야별 사인회 그리고 전통적 부스사인회 등으로 진행됐는데, 책을 들고 사인을 받으려 줄 서 있는 독자들의 모습에서 책과 저자를 사랑하는 미국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픽 노블 코믹Graphic Novel/Comic 전시관은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였다. 지난해 서점 호황을 반영하듯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난 100여 개 출판사가 참가했다. SLG출판사의 운영매니저 조 나카무라Joe Nakamura 씨는 “그동안 그래픽 노블 코믹은 출판의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판매신장이 출판시장에 많은 자극을 주어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소재한 코믹 릴리프Comic Relief의 경영자 로이 루트 씨는 세미나에서 “다양한 소재를 포함하는 코믹은 이제 모든 독자를 위한 분야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미나 진행을 맡았던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서평담당 기자 켈빈 리드 씨는 “이 분야에서 큰 장르는 망가(일본만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시장에서의 일본만화 강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올리언스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브리튼 트라이스 씨가 “도서전이 내가 원하던 정보를 제공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어 사업에 더 큰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 것처럼, 이번 미국도서전은 도서전이 출판물의 전시, 저작권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출판산업 종사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친분을 쌓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한국의 국제도서전에서도 출판 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아시아 도서전들과 연계되는 교육과정 등이 신설되면 한층 활력이 생길 것이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출판분야를 전공했으며,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일했다. 현재 미국 출판마케팅협회Publishers Marketing Associaton 회원이며, 미국출판마케팅협회에 재직하고 있다.